

對唐·對日本との 交流關係를 통해 본 渤海의 服飾文化 研究

-교류시 품목을 중심으로-

전 현 실*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Study on the Costume of Parhae through the Exchange for Tang and Ancient Japan

- focused on the Exchanged Items -

Hyun-Sil Jeon* · Soon-Che K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2004. 12. 2 토고)

ABSTRACT

This study is considered about the relation of costume among Parhae, ancient Japan and Tang and the culture of this time commonly was influenced by Tang's culture.

The recorded items, which were exchanged from Parhae to Tang and ancient Japan, are the pelt of marten, seal, bear and tiger skin or Ammowha(暗摸靴), Gu(裘) and so on. Other items from Tang and ancient Japan to Parhae are various clothes and material like silk and so on.

This Parhae's clothes made with leather obtained through hunting were the main product of Parhae and had been greatly famous in Tang and ancient Japan. At that time, Tang and ancient Japan had been only dependent on the agricultural life but had not been accustomed to the hunting life, and thereupon, the people in Tang and Nara(奈良) Era had difficulties to get leather clothes. Accordingly, the leather products stood for the rich, and the people who purchased the leather products from Parhae were recognized as the rich.

On the other hand, The prince and the royal family in Parhae were dispatched to Tang as Sookwui(宿衛). They paid a tribute to Tang and in return for it, Tang gave to Sookwui as well as to Parhae's envoys various items and clothes such as Po(袍), belt(帶), gold and silver Eodae(魚袋) and textile like a type of silk. These clothes were considered as the formal uniform like Kwanbok(冠服) of Parhae. Specially, the time when Sookwui was sent to Tang corresponded with the time when Tang gave formal uniform to Parhae's envoy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 sending of Sookwui influenced to form uniform system of Parhae.

In this exchange relation, there were several duplicated items showed, for example Po(袍)-belt(帶), Eui set(衣一襲), Eoeui(御衣), Jobok(朝服), Go(袴). These items in Parhae were appeared in process of exchanging from Tang to Japan and from Japan to Parhae. At that time, the exchanges between Tang and Parhae were frequently active much more than those between Tang and Japan, and the acceptance of the culture from Tang was easier in Parhae than Japan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herefore, those clothes could be understood as the items already used in Parhae and affected from Tang. These items in Parhae were appeared in process of exchanging from Tang to Japan and from Japan to Parha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costumes, which Parhae took from Japan, are the same as those of Tang.

Key words: parhae(발해), exchanged item(교류품목), system of official uniform(관복제도), sookwui(속위), duplicated items(중복품목)

I. 서론

渤海는 지리적으로 唐과 日本을 사이에 두고, 당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과도 정치 문화 경제적 교류관계를 지속하였다. 일본 또한 당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해와 교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시대의 발해와 일본, 당은 삼각구도의 연관관계에서 상호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류가 활발히 행해졌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발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新唐書》와 《渤海考》에는 발해의 교통로에 대한 기록¹⁾이 있는데, 당으로 통하는 '朝貢道', '營州道', 거란으로 통하는 '契丹道', 신라로 통하는 '新羅道', 일본으로 통하는 '日本道'가 있었고,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남비길'도 있어. 이를 통해 발해는 여러 지역과 政治·經濟·文化 交流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교통로를 통해 발해는 여러 지역과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조공도, 영주도를 통해서는 五代를 포함한 唐, 일본도를 통해서는 일본과 정치·문화·경제적 관계를 유지했다.

발해와 그 주변국 간의 사신 파견은 처음에 인접 국가와의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의미가 점차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 되었고, 경제적 교류 시 각 국가들은 파견된 사신들을 통하여 그들의 대표적인 產物을 주고받는 무역의 형태로 관계를 유지했다.²⁾ 따라서 교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의류 품목들은 당시의 복식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해와 당과의 관계와 발해와 일

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언급된 의류 품목을 조사·분석하여 발해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시기는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국이 교류했던 시기는 8세기 초~10세기 초까지로, 이때의 발해와 일본의 문화에는 당 문화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는데, 특히 발해는 3대 文王代(737~793)에, 일본은 嵯峨天皇(809~822)과 淳和天皇(823~832)代에 唐風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발해가 존속하던 시기인 7세기 말~10세기 초의 일본은 나라시대와 헤이안 시대 전반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헤이안 시대 전반기의 문화는 전 시기인 나라시대와 유사하므로 이 시기 일본의 문화는 나라시대 문화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 방법은 중국의 고대 문헌이나 일본 사료에 나타난 품목 기록과 발해와 공존했던 나라시대의 유물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문헌이나 일본 사료에는 발해와 주변국가와의 사신 왕래 시 각국 간에 주고받았던 다양한 物目들이 기록되어 있고, 服飾을 포함한 경제적 교류 관계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아있어서 발해 복식 문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渤海人の生活-服飾을 중심으로-》, 《渤海 服飾에 대한 研究》, 《渤海와 新羅의 服飾 比較研究》, 《石國墓 출토渤海 三彩 女俑의 복식 연구》, 《渤海 服飾 研究》 등³⁾이 있다. 이 연구들은 기존의 발해 복식에 관한 문헌과 다양한 유물 자료를 통합하고 재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80년에 발견된 貞孝公主墓 壁畫 등의 발해 관련 遺物이나 中國 文獻을 바탕으로渤海 服飾과 唐 服飾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으로, 대체로 발해 복식은 당

복식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관점은 발해 복식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나타난 한계는 발해 복식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품목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해의 복식에 대한 연구 관점을 당과의 관계 외에도 일본과의 교류를 통한 고대 일본복식과의 관계로 확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발해 복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발해의 교류품목

1) 발해와 당(오대)과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난 교류품목

《冊府元龜》, 《舊唐書》, 《五代會要》, 《張建章墓誌》의 내용을 보면 발해와 당(오대 포함)과의 경제적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발해에서 당이나 오대에 준 품목은 鷹, 貂鼠, 鯰, 海豹皮, 貂鼠皮, 鶴, 馬, 熊皮, 虎皮 등의 鳥獸나 가죽류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드물게 瑪瑙盃, 黃明細布, 昆布[다시마], 人參 등의 품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은 발해 사신에게 다양한 물품을 사여했는데, 특히 의복류에는 錦袍, 紫袍·金魚袋, 緋袍·銀帶, 衣一襲을, 직물류에는 絲練, 錦, 綿, 帛, 絹을 사여했다는 기록이 있다.〈표 1〉

그런데, 渤海와 唐·五代 간에 주고받았던 품목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발해의 수출 품목이 초반에서 후반기에 걸쳐서는 鷹을 중심으로 한 鳥類, 海獸魚類가 주를 이루다가 말기에 이르면 貂鼠皮, 熊皮, 虎皮와 같은 獸皮類 및 마직물(細布)과 같은 품목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품목에는 722~739년에 걸쳐 袍·帶·魚袋가 주로 나타나는데, 중반 이후로 의복 품목은 812년에 衣一襲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錦, 絲, 帛, 綿과 같은 직물류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표 2〉 渤海와 唐·五代 간의 교역 품목

시기 (년)	渤海 → 唐·五代	唐·五代 → 渤海	출처
722	鷹	錦袍金魚袋	冊府元龜
724		帛 50疋	冊府元龜
725		紫袍金帶魚袋	冊府元龜
726		絲練 100疋, 帛 50疋	冊府元龜
727	貂鼠		冊府元龜
728		絹 300疋	冊府元龜
729	鷹, 鯰	紫袍金帶, 帛 20疋	冊府元龜
730	海豹皮 5張, 貂鼠皮 3張	緋袍銀帶, 絹 20疋, 帛	冊府元龜
731		帛 100疋(2月), 帛30疋(10月)	冊府元龜
736		帛 30疋(3月), 帛500疋(11月)	冊府元龜
737	鷹, 鶴	紫袍金帶, 帛 100疋	冊府元龜
738	豹鼠皮 1000張, 乾文魚 100口		冊府元龜
739	鷹	紫袍金帶·銀帶, 帛 100疋	冊府元龜
740	貂鼠皮		冊府元龜
749	鷹		冊府元龜
750	鷹		冊府元龜
777	鷹		冊府元龜
779	鶴		舊唐書
812		衣一襲	冊府元龜
813		綿, 絲	冊府元龜
814	鷹, 鶴		冊府元龜
816		錦, 絲	冊府元龜
817		錦, 綿	冊府元龜
833	文革		張建章墓誌
838		錦, 絲	冊府元龜
846		錦, 絲	冊府元龜
908		金帛	冊府元龜
909	貂鼠皮, 熊皮		冊府元龜
924		錦, 絲	五代會要
925	黃明細布, 貂鼠皮1褥, 六髮靴革		冊府元龜
926	虎皮		冊府元龜

2)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난 교류품목

727년부터 시작된 200여년 동안의 34차례 사신 교류를 통해 나타난 의류 목록은 다양하다. 먼저 727년(1차)⁴⁾, 739년(2차)⁵⁾, 827년(28차)⁶⁾, 876년(29차)⁷⁾, 920년(34차)⁸⁾ 총 5회에 걸쳐서 발해 사신

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가져간 品目들을 살펴보면(표 2), 초기에는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짐승의 가죽과 같은 衣料가 대부분인데, 나중에는 주로 의류 품 또한 고혁제품(暗摸靴, 帶, 裳)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품목의 내용이 후대에 이를수록 점차 1차적인 원료에서 이 원료들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表 2) 발해와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 시 발해 사신들의 일본 조정에 증정했다는 품목만을 정리한 것이고, 이 외에 발해 사신이 일본 조정에 수차례 方物(信物)을 증정했다는 기록이 있어⁹⁾,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 기록에 없는 비공식적인 교역품도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품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자세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표 2〉 발해가 일본에 증정한 품목

	시기	衣服品目	衣料	출처
渤海 → 日本	727		貂皮 300張	續日本紀
	739		大蟲皮 7張 · 熊皮 7張 · 豹皮 6張	續日本紀
	827		大蟲皮 7張 · 豹皮 6張 · 熊皮 7張	日本三代實錄
	876	暗摸靴, 貂裘		渤海國志長編
	920	帶, 裳		扶桑略記

한편 발해 사신들은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布帛製의 衣料와 함께 여러 종류의 衣服을 받았는데(표3), 그 중 衣服 品目은 727년(1차-도착시), 728년(1차-귀국시), 739년(2차), 758년(4차), 759년(5차), 762년(6차), 771년(7차), 776년(9차), 786년(12차), 795년(13차), 798년(14차-도착시), 799년(14차-귀국시), 811년(16차), 842년(24차), 849년(25차), 859년(26차), 872년(28차), 883년(30차), 908년(33차), 920년(34차) 총 20회가 기록되어 있고, 그 종류는 時服, 當色服, 朝服, 衣服, 雜色祫衣, 藉揩衣, 御衣, 衷, 冠, 履 등이다.¹⁰⁾

이 의복들은 당시의 주된 복식형태였던 團領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의 것들도 당의 영향을 받은 의류 품목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도 奈良時代에는

遣唐使를 파견하는 등,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는데, 8세기 즈음에 이르면 일본 복식 문화에는 전반적으로 당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발해가 당·오대와 일본에 준 품목으로는 가죽 소재나 暗摸靴, 裳 등과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류 품목이, 당(오대)과 일본이 발해에 준 품목으로는 다양한 의복류와 여러 비단류의 衣料였음을 알 수 있다.

III. 발해의 수출품목과 그 의의

발해 사신들이 일본이나 당(오대)에 증정한 품목은 주로 가죽 제품인데, 이는 발해의 產物 중 대표적인 것이 가죽류였기 때문이다.

발해 영토의 북부 지역은 수렵이 주로 행해졌으며, 이 일대는 또한 산이 높고 삼림이 우거지고, 기후가 매우 춥다. 이러한 기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의 모피를 방한의로서 착용하였는데, 짐승이나 가볍고 따뜻한 새의 깃털이 의복의 중요한 소재로, 이것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

수렵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당과 고대 일본 사람들은 가죽과 같은 의료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죽 의료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품목은 당시 사람들의 부의 상징으로서 매우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모피를 의료로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추운 지역의 주민에게 한정되어 였던 반면에, 열대나 아열대, 온대의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필요불가결한 품목은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변경의 수렵민으로부터 모피를 조공품이나 교역의 수단으로 삼고자 입수하였다.

당에서는 장안을 중심으로 모피를 조공무역을 통해 먼 곳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유통시켰었고¹¹⁾, 일본에서는 귀족을 중심으로 발해인들이 갖고 오는 담비, 호랑이, 말곰 등을 선호하였다. 일본인들의 모피 선호에 대한 기록은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竹取物語』에는 '가구야(かぐや) 아가씨'가 남자들에게 '鼠皮衣'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¹²⁾

〈표 3〉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품목

시기(년)	衣類 品目	衣 料	출처
727(도착시)	時服, 衣服, 冠, 覆	·渤海王: 彩帛10疋, 綾10疋, 純20疋, 糸100絪, 織200屯 ·使臣: 彩帛, 綾, 純	續日本紀, 渤海國志長編
728(귀국시)	當色服		
日 本 ↓ 渤 海	739	·渤海王: 美濃純30疋, 絹30疋, 糸150絪, 調綿300屯 ·己珍蒙: 美濃純20疋, 絹10疋, 糸50絪, 調綿200屯 *聘物豆 調布115端, 廉布60段	渤海國志長編
	758	·渤海王: 絹40疋, 美濃純30疋, 糸200絪, 織300屯, 錦4疋, 兩面2疋, 繡羅4疋, 白羅10疋, 彩帛40疋, 白綿100帖 ·使臣: 織1萬屯	渤海國志長編
	759	·渤海王: 絹30疋, 美濃純30疋, 糸200絪, 調綿300屯	渤海國志長編
	763	雜色袴衣 30樁	續日本紀
	771	·國王: 美濃純30疋, 絹30疋, 糸200絪, 調綿300屯	渤海國志長編
	776	·國王: 絹50疋, 純50疋, 糸200絪, 織300屯 ·왕후의 被을 조상하며 贈物: 絹20疋, 純20疋, 織200屯	渤海國志長編
	786	常陸調純, 相模庸綿, 陸奥稅布	渤海國志長編
	795	·渤海王: 絹20疋, 純20疋, 糸100絪, 織200屯	渤海國志長編
	798	純30疋, 絹30疋, 糸200絪, 織300屯	渤海國志長編
	799	藜揩衣	日本後紀
	811	衣被	日本後紀
	842	時服	續日本後紀
	849	烏孝慎의 別貢에 대해 東純50疋, 織400屯	續日本後紀
	859	·出羽國의 絹145疋, 織1225屯을 渤海使105인에게 分배. ·李居正: 따로 純10疋, 織40屯을 줌.	渤海國志長編
	872	時服, 朝服, 御衣	日本三代實錄
	883	御衣, 桥, 朝衣	日本三代實錄
	908	御衣, 青白橡表袍	扶桑略記
	920	時服	扶桑略記

또 919년 발해 사신 裴璆가 5월 12일의 풍락전 연회에 초대받았을 때 黑貂裘 한 벌을 입고 출석했는데, 일본 醍醐天皇의 아들인 重明親王은 검은 담비로 된 흑초구 8벌을 입고 참석하였다¹³⁾는 내용이다. 기록 중의 5월 12일은 음력을 지칭하는 것¹⁴⁾으로, 이를 양력으로 하면 초여름의 시기로서 黑貂裘 8벌은 계절에 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피나 가죽이 갖고 있었던 부나 권력의 상징성 때문에 더위를 무릅쓰고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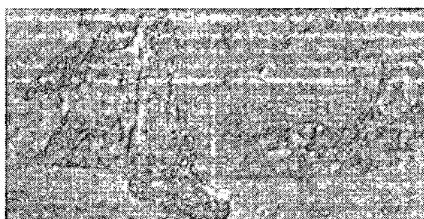
또한 《延喜式》에, “5위 이상은 虎皮를 사용할 것. 단 豹皮는 參議 이상과 참의가 아닌 3위 이상 허용하고 이밖에 허용할 수 없다. 貂皮는 참의 이상에게 착용을 허용한다…熊[곰] 가죽으로 만든 障泥는 5위 이상에게 허용한다.”¹⁵⁾는 내용을 통해 당시 일본에서는 모피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모피의 사치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日本三代實錄》

에도 “885년(仁和元年)에, 貂裘 착용을 금했는데, 단지 참의 이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¹⁶⁾라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日本三代實錄》¹⁷⁾과 《扶桑略記》¹⁸⁾에, 발해의 객을 대접할 때는 禁物을 몸에 지니는 것을 허용한다는 기록이 있어, 금지 예외의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유명한 산물 중의 일부인 虎皮, 豹皮, 貂皮, 頭皮와 같은 가죽류는 일본의 5위 이상의 위계가 높은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었던 귀한 품목이었고, 규제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일본사람들에게 매우 유행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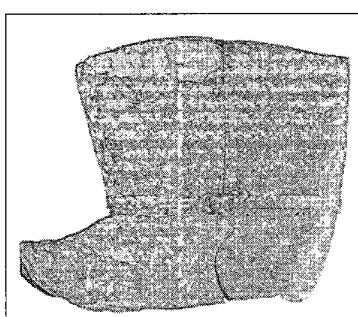
발해가 일본이나 당으로 수출한 품목인 暗摸靴나裘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암모화는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검은색의 靴에서, 동물의 모피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衣는 중국 회화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暗摸靴는 876년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 楊中遠을 통해 일본 조정에 증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각주 6 참조), 이는 발해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형태는 貞孝公主墓 雕화 중 侍衛가 신었던 신발(그림 1)과 일본 나라시대 正倉院인 유물인 烏皮靴(그림 2)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류 과정에서 衫에 관해서는 876년 발해 대사 양중원이 일본인 都良香에게 貂裘를 증정했다는 기록(각주 6 참조)과 920년에 배구가 귀국할 때 일본에 증정했다는 기록(각주 7 참조)이 있다. 당시 발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衫를 수출하였는데, 그 형태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狐皮裘를 걸친 陳文帝(그림 3)의 모습과 紫色 貂로 깃과 袖口에 선을 두른 銀鼠裘를 입은 원 황제(그림 4)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구를 착용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해가 수출한 구도 그만큼 귀하게 여겨졌던 품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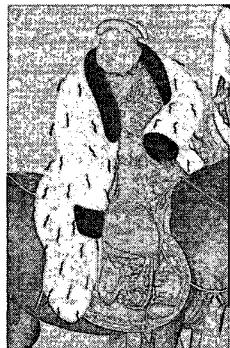
〈그림 1〉 무사, 시위의 靴
(발해를 찾아서, p. 50)



〈그림 2〉 烏皮靴
(奈良朝服飾의 研究 圖錄編, p. 96)



〈그림 3〉 陳文帝 狐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p. 142)



〈그림 4〉 元代 銀鼠裘
(故宮圖像選萃, p. 1)

그런데, “중국 漢 武帝 때에는 서역으로부터 賸와 狐를 받아 衣를 만들었다”¹⁹⁾는 기록을 통해, 중국에서는 衣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를 수입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해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衣와 그에 따른 의료를 수출했을 것이고, 〈그림 3〉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사용되었던 鹿皮나 貂는 발해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산물로써 당시 당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유명한 產物은 가죽이나 모피제품이었기 때문에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증정한 衣도 발해에서 생산되었던 毛皮로 만들어진 품목일 것이고, 일본에서 919년에 풍락전의 연회에서 일본 醒醐天皇의 아들인 重明親王이 입었던 黑貂裘도 발해에서 전해준 衣衣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발해의 수입품목과 의의

발해가 존속한 7세기 말~10세기 전반기에 발해를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唐, 동쪽으로는 日本과 접해있어 渤海-唐-日本, 三國간에 政治·文化 및 經濟的 交流가 활발했는데, 이 중 경제적 교류도 이 시기 발해의 복식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당, 일본과의 교류관계에 의해 나타난 발해의 복식문화는 그 일부를 당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이는 특히 발해 지배층의 복식문화로 나타나

고 있다.

1. 발해관복제도와 그 품목

발해의 복식제도 및 관복은 당의 제도와 그에 따른 복식과 유사한 다양한 의복류에서 나타난다. 발해의 복식제도는 3대 문왕 때인 739~742년에 정해졌는데, 이 시기는 738년 발해에서 사신을 통해 《唐禮》등의 중국 문헌을 들여오고, 이를 바탕으로 발해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후로부터 문왕이 수도를 중京으로 천도하고 5京이 확정된 시기이다. 기본적인 관복제도의 틀은 紫·緋·淺緋·綠의 4색이고, 그 구성은 袍(團領), 帶, 穗, 魚袋로서 이는 당의 常服 제도에 준하는 것이었다.²⁰⁾

그런데, 발해는 707~824년의 기간 동안 왕자 및 왕족들을 당에 宿衛로서 총 12회에 걸쳐 파견하여 조공했는데²¹⁾, 이에 대해 당 조정은 관직과 함께 관복 및 의료들을 주었다. 발해인들이 받은 품목은 대체로 紫袍-金帶-魚袋나 緋袍-銀帶-魚袋의 구성을 보인다. 이는 발해 복식제도의 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宿衛를 중심으로 한 사신들이 발해로 귀국 시 이러한 관복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발해의 복식제도 정착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발해의 숙위 및 사신들이 당으로부터 관복을 받은 시기는 722~738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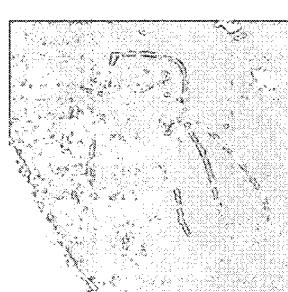
발해의 복식제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로서, 수차례에 걸친 숙위 및 사신 파견을 통해 738년 이후 발해 복식제도의 체계가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해와 일본의 교류관계에서는 의료 즉 다량의 견직물류 외에도 다양한 의복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관복의 포와 의례용 의복으로 분류된다. 의례용의 남자 의복으로는 藜揩衣, 雜色拾衣를, 관복의 용도로는 朝服, 時服, 當色服, 御衣, 青白橡表袍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冠帽도 교류 관계에서 나타나는 품목인데, 일본에서 발해사신에게 준 冠은 공식적으로 조정에서 사신에게 증여한 품목이므로, 官服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冠으로만 지칭되어 있어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시 보편적인 관복 일습으로 착용되었던 檻頭로 생각된다.

발해 복두의 형태는 당의 四帶巾, 平頭小樣巾子, 內樣巾子의 세 가지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 당의 사대건은 복두의 가장 초기 형태로 韋洞 墓(708년) 石櫛線刻畫(그림 5) 등의 회화에서 보이고, 점차 두정이 낮으면서 방형의 편평한 형태로 변화된 평두소양건자는 唐 永泰公主墓 石刻人物(그림 6) 등의 인물에서 확인된다. 그 후 앞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숙인 내양건자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唐 楊思勗墓 壁畫 樂人(그림 7) 등에서 볼 수

〈표 1〉 발해의 복두 형태 분류

I 형	II 형	III 형
		
악사 (발해를 찾아서, p. 50)	복두를 쓴 인물 (조선유적유물도감, p. 275)	내시 (발해를 찾아서, p. 51)

있다. 일본의 복두는 685년에 唐의 幢頭를 수용하여 초기에는 이를 漆紗冠이라 했는데, 이 형태는 聖德太子 畫像(그림8)에서 볼 수 있다. 이는 唐 초기 형태의 幢頭인 四帶巾의 형상으로, 후각은 卷脚의 양식이다.



〈그림5〉 韋洞墓壁畫侍從
(中國美術史, 插圖28)



〈그림6〉 永泰公主墓馬夫
(中國古代服飾研究, p. 190)



〈그림7〉 楊思勣墓樂人
(中華五千年文物集刊, p. 156)



2. 교류과정에서 나타난 중복 품목의 의미

발해-당-일본의 교류관계 중 사여 혹은 증정의 과정에서 '발해가 당으로부터 받은 품목'과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품목'을 살펴보면, 서로 같은 명칭의 품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복 품목'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곧 袍-帶, 衣一襲, 朝服, 衿이다. 그런데, 교류관계에서 품목의 기록은 당에서 일본 사신으로의 전달, 일본에서 발해 사신으로의 전달 과정만 언급되어 있어서 발해 사신들이 당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품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袍와 帶 및 衿는 貞孝公主墓 벽화의 인물들의 복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朝服은 천황 이하 관

위가 있는 신하가 평상시 공무에 종사할 때 착용하는 공복이며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관복으로²²⁾ 일본에서의 '朝服'은 당과 발해의 조복과는 다른 것으로 朝參시의 의복인 '常服'을 의미하는 것이고,²³⁾ 朝服과 883년에 기록된 朝衣는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또한 衣一襲은 812년, 당이 발해 사신들에게 사여한 기록이 있어 발해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품목들은 발해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들은 발해의 의복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당시 발해와 일본 양국 모두가 당의 복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발해와 당(오대 포함)의 교류 횟수가 당과 일본과의 교류관계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었고, 지리적인 위치나 항해술의 기술면에 있어서 발해가 일본에 비해 문화의 수입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810년대~820년대의 일본은 일본을 방문하는 발해 사신을 통해 당의 다양한 문물을 간접적으로 취득하고자 했다는 사실도 이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으로 당과 발해의 관계에서 직접 언급된 바는 없으나 기록에 나타난 중복 품목들은 이미 당으로부터 발해에 유입되어 있던 품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중복 품목 중 朝服, 衿, 衣一襲는 799~920년의 기간에 나타났는데, 이는 관복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발해의 관복 제도가 739~742년에 형성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발해의 제도복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형태나 품목의 명칭은 당과 유사한 것으로서 일본으로 수용한 의류 품목을 통해 발해 남자 복식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발해의 의료 수입의 의미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의료는 견직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당 常服의 제도에서 사용된 衣料에 준하여 수입되었던 것들로서, 대체로 綾·羅와 같은 고급 직물은 5품 이상의 관직자가 사용하고, 紬·絁·絹·布와 같이 직조가 용이한 평직의 견직물이나 마포는 6품 이하나 서민들이 사용하였다.²⁴⁾ 그런데 일본의 朝服 제도에서 특히 綾과 같은 고급 직물은 5위 이상의 위계가 높은 자들만

착용토록 규제하였기 때문에²⁵⁾、綾・羅는 일본에서 도 귀하게 사용되었던 직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해에서 높은 위계를 지닌 관직자들의 관복에는 당과 같이 능, 라와 같은 직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紬, 布와 같은 직물의 생산만 가능했던 발해에서는 이러한 綾, 羅 및 錦과 같은 견직물을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서 수입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품목에 있어 綾, 羿 및 錦과 같은 고급 견직물의 수입은 발해와 일본 교류의 초반기(727년, 758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는 紌, 絹과 같은 평직의 견직물이나 糸, 綿, 布와 같은 발해에서 생산 가능한 섬유 제품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해가 이미 당으로부터 그 직조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수입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발해의 교류 관계는 대체로 초기에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의미가 점차 변화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되고, 각 국가들은 서로 간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대표적인 제품을 주고받는 무역의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당의 문화를 구심점으로 삼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발해와 일본의 조정에서도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다양한 당의 문헌과 문물을 익히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처럼 당·일본과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난 발해의 복식 문화는 당을 중심으로 한 발해·당·일본의 복식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袍-帶, 衣-襲, 朝服, 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발해의 상류층의 복식문화, 특히 관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품목 중에서 袍-帶, 朝服과 같은 의류 품목은 단령 형태로, 이는 발해 관복(袍[團領], 帶, 笏, 魚袋)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복에 사용되는 직물은 견직

물로, 당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료(綾・羅・紬・絹・絹・布)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는 인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이전 우리나라 고유복식을 착용하던 삼국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복식문화를 전개시켰으며, 특히 발해의 상층 문화는 자연스럽게 당과 유사점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발해 3대 문왕대부터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문왕 이전 시기의 발해의 복식은 褙와 褒, 二部式 복식형태가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발해 초기의 관복도 이러한 고유의 복식이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발해는 북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가죽류의 의료(鳥類, 海獸魚類, 貂鼠皮, 熊皮, 虎皮) 및 피혁 제품들(暗摸靴, 帶, 裳)을 당이나 일본으로 수출하였는데, 이들 품목은 가죽류의 의료를 귀하게 여겼던 당과 일본 상류층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서 크게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 있어서 품목의 내용이 후대에 이를수록 점차 1차적인 원료에서 이 원료들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발해의 국력 신장 및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문헌 및 시각자료와 정효공주묘 벽화와 같은 일부의 발해 유적 자료를 통해 발해 복식에 대해 연구했으나, 앞으로도 발해 유적이 발굴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新唐書》卷219 北狄 渤海傳：龍原東南渤海，日本道也。南海，新羅道也。鴨綠，朝貢道也。長嶺，營州道也。扶餘，契丹道也；《渤海考》地理考：五京 上京 龍泉府。中京 顯德府。東京 龍原府。南京 南海府。西京 鴨綠府。十五府 龍泉府 肅慎古地。顯德府 肅慎古地在龍泉府南。龍原府 濟貊古地赤亦柵城府爲日本道。南海府 沃沮古地爲新羅道。鴨綠府 高句麗古地爲朝貢道。
- 2) 727년부터 발해가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의 성격에 대하여, 초기 5차까지는 武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762년 6차부터는 文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학자 간에 異見이 있으나,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전·후기 발해 사

- 신들의 일본 파견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상관없이 초기부터 사신 파견이 끝나는 10세기 전반까지兩國間에는 국가의 특산품 교환이 있었으므로, 사신 파견이 있었던 이 시기에는經濟的交流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최재식 (1993).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관계. 일지사: 李成市 著, 김창식 譯 (1999). 동아시아의 王권과 交역. 청년사: 石井正敏 (1974). 初期日渤海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中止と關連のをめぐって. 史學論集對外關係と政治文化(1). 森克己博士古稀記念會. 東京: 吉川弘文館: 조이옥 (1994). 渤海 文王代 對新羅交涉과 南京. 동양고전연구(3).
- 3) 송기호 (1996). 渤海人의 生活-服飾을 중심으로-. 복식, 28호: 金文子 (1997). 渤海 服飾에 대한 研究.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15집: 全炫室 (1999). 渤海와 新羅의 服飾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지 · 이순원 (2000). 石國墓 출토渤海 三彩 女俑의 복식연구. 복식 50(3): 김민지 (2000). 渤海 服飾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五年(727)春正月…甲寅…寧遠將軍郎將一作龍毅都尉高仁義…并附貂皮三百張奉送
- 5) 《續日本紀》卷13: 天平十一年(739)…十二月戊辰 渤海使己珍蒙等拜朝…并附大蟲皮襍皮七張豹皮六張人蔘三十斤
- 6) 《日本三代實錄》卷4: 貞觀十四年(827)…五月…丁亥…檢楊成規等…其信物大虫皮七張豹皮六張熊皮七張蜜五斛
- 7) 《渤海國志長編》卷17 食貨考: 渤海人能製靴 玄錫六年(876)聘日本使楊中遠魄暗摸靴 末王十九年使臣裴璆貢靴於後是也 此靴蓋爲製惟暗摸靴命名之義未詳或爲夜行時所需故名暗摸: 《都氏文集》: 謝渤海楊大使贈 貂裘麝香暗模靴 狀
- 8) 《扶桑略記》卷24: 醒醐延喜二十年(920)...六月...二十二日 朝綱令秦遣渤海大使裴璆書狀 客已飯鄉 郎仰所贈帶裘
- 9) 총 34회의 파견 기록 중에서 14회(753년, 758년, 762년, 771년, 776년, 795년, 798년, 809년, 819년, 821년, 848년, 859년, 882년, 908년)는 方物 혹은 信物로만 기록되어 있다.
-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交創書房. 付表1 참조.
- 10) 전현실 · 강순제 (2003). 遣日本渤海使의 交流品目에 나 타난 服飾 연구-일본 사료를 중심으로-. 복식 53(6), pp. 52-56.
- 11) 関田涼子 외 편저 (1992). 北の人類學. アカデミア出版社. p. 112, p. 114.
- 12) 阪倉篤義 校注 (1959). 竹取物語 五 火鼠の皮衣(あべの右大臣の話). 岩波書店, pp. 41-45.
- 13)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p. 213.
- 14) 일본은 1872년 12월에 太陽曆을 채택함에 따라 12월 3일이 明治 6년 1월 1일이 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 이전의 고대 일본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坂本賞三 · 福田豊頽 (1990). 新選 日本史 圖表. 第一學習社. p. 195.
- 15) 《延喜式》卷41 彈正臺: 凡五位以上聽用虎皮. 但豹皮

者參議以上. 及非參議三位聽之. 自餘不在聽限…凡獮皮障泥聽五位以上著之

- 16) 《日本三代實錄》卷47 光孝天皇: 仁和元年正月十七日癸酉, 是日始禁著用貂裘但參議已上非制限
- 17) 《日本三代實錄》卷43 陽成天皇: 元慶七年(883)四月…二十一日丁巳 緑饗渤海客諸司官人雜色人等 客徒在京之間聽帶禁物.
- 18) 《扶桑略記》第24 醒醐: 延喜二十年(920)…五月五日定客徒可入京 幷蕃客入京之間可聽着禁物.
- 19) 《倭漢三才圖會》卷 第27: 西京雜記云武帝時西域獻吉先裘入水不濡入火不焦大抵用鼈及狐兔等毛皮
- 20) 全炫室 (2004). 對外關係를 중심으로 본 渤海 男子 服飾 研究.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8-99 참조.
- 21) 卞麟錫 (1966).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唐代「外人宿衛」의一研究. 史叢(11): 隋欣 (1999). 新羅宿衛外交의 성격: 新羅·渤海宿衛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52; 金澨 (1999). 唐前期皇帝宿衛의 구조. 魏晉隋唐史研究, 제5집, pp. 52-54.
- 22)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卷5). 大修館書店, p. 1055.
- 23) 野村美千代 (2003). 唐 常服의 유입 이후 韓·中·日團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 24) 《舊唐書》卷45 志25 輿服: 武德初…四年八月敕 三品已上, 大科細綾及羅, 其色紫, 飾用玉. 五品已上, 小科細綾及羅, 其色朱, 飾用金. 六品已上, 服絲布. 雜小綾, 交梭. 雙綺, 其色黃, 六品, 七品節銀, 八品, 九品鑑石, 流外及庶人服絹, 純, 布, 其色通用黃, 飾用銅鐵. 五品已上執象笏. 三品已下前挫後直, 五品已上前挫後屈, 自有唐已來, 一例上圓下方, 曾不分別. 六品已下, 執竹木爲笏, 上挫下方, 其折上巾, 烏皮六合靴, 貴賤通用: 《新唐書》卷24 志14 車服: 親王及三品, 二王後(后), 服大科綾羅, 色用紫, 飾以玉. 五品以上服小科綾羅, 色用口朱, 飾以金. 六品以上服絲布交梭雙綺, 色用黃. 六品, 七品服用綠, 飾以銀. 八品, 九品服用青, 飾以鑑石. 勳官之服, 隨其品而加佩刀, 碩, 紛帨. 流外官, 庶人, 部曲, 奴婢, 則服紬絹施布, 色用黃白, 飾以銅, 鐵: 《舊唐書》卷45 志25 輿服: 貞觀四年又制, 三品已上服紫, 五品已下服緋, 六品, 七品服綠, 八品, 九品服以青, 帶以鑑石: 《舊唐書》卷45 志25 輿服: 武德五年八月敕, 七品已上, 服龜甲雙十花綾, 其色綠, 九品已上, 服絲布及花綾, 其色青. (《新唐書》卷24 志14 車服: 太宗時, 又命七品服龜甲雙十花綾, 色用綠, 九品服絲布, 雜綾, 色用青); 《新唐書》卷24 志14 車服: 自是駕冕以下, 天子不復用, 而白袴廢矣. 其後以紫爲三品之服, 金玉帶鈔十三, 緋爲四品之服, 金帶鈔十一, 淺緋爲五品之服, 金帶鈔十, 深綠爲六品之服, 淺綠爲七品之服, 皆銀帶鈔九, 深青爲八品之服, 淺青爲九品之服, 皆鑑石帶鈔八, 黃爲流外官及庶人之服, 銅鐵帶鈔七: 《舊唐書》卷45 志25 輿服: 龍朔二年, 司禮少常伯孫茂道奏稱, 舊令六品, 七品著綠, 八品, 九品著青, 深青亂紫, 非卑品所服. 望請改八品, 九品著碧: 《舊唐書》卷45 志25 輿服: 上元元年八月又制, 一品已下帶手巾, 算袋, 仍佩刀子, 磚石, 武官欲帶者聽之. 文武三品已上服紫, 金玉帶, 四品服深緋, 五品服淺緋, 並金帶, 六品服深綠, 七品服

淺綠，並銀帶。八品服深青，九品服淺青，並鑑石帶。庶人並銅鐵帶：《舊唐書》卷45 志25 輿服：文明元年七月甲寅詔…八品已下舊服並改以壁碧；《唐會要》卷31 輿服 上 雜錄：太和六年六月勅詳度諸司制度件等禮部式 親王及三品已上若二王後服色用紫飾以玉 五品已上 服色用朱飾以金 七品已上服色用綠飾以銀九品已上服色用青飾以鑑石…流外官及庶人服色用黃飾以銅鐵

- 25) 조복의 재료에 대한 기록은 《續日本紀》에 따르면, “716년(靈龜 2) 10월에 內外諸司의 관리는 얇은 紗의 조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續日本紀》卷7 元正天皇：靈龜二年…冬十月壬戌 以從四位下長田王爲近江守重禁內外記諸司薄紗朝服)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아 비록 규제가 있기는 했으나, 얇은 紗 가 위계에 관계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얇은 옷감의 조복에 대해 《日本後紀》에, “814년(弘仁 5)閏7월, “內外諸司인이 얇은 옷감의 朝服을 착용하는 것을 허락했다.”(《日本後紀》卷24 嵐峨天皇：弘仁五年閏七月…己亥 聽內外諸司人着薄朝服)는 내용과 같이 착용금지령이 해제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옷감의 요구가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令集解》(貞觀年間, 859~875년) 武官 朝服條에는 “6位 이하가 四窠 이하와 小綾의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令集解》卷29 衣服令 朝服條：六位以下 聽服用四窠以下及小綾)라 하여, 6위 이하도 작은 문양의 綾을 착용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延喜式》(927~967년)에 따르면, “綾은 5位 이상의 朝服에서 사용할 수 있고, 6位 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延喜式》卷41 彈正臺：凡綾者 聽用五位已上朝服 六位以下不得服用)라 하여 綾은 5위 이상의 조복에 사용이 허락되었고, 6위 이하는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